

## 신문 모니터

- 문서번호 부산총감연2020-0401-신문04
- 수 신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사회부 기자
- 발 신 부산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
- 제 목 국제신문, 첫 선거 기획이 판에 박힌 여론조사 보도?
- 날 짜 2020년 4월 01일(수)

### 국제신문, 첫 선거 기획이 판에 박힌 여론조사 보도?

부산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는 부산지역 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과 지상파방송 메인뉴스(KBS 부산, 부산MBC, KNN 저녁종합뉴스)를 주요 대상으로 선거 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를 대상으로 3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간 진행한 신문 모니터 4차 보고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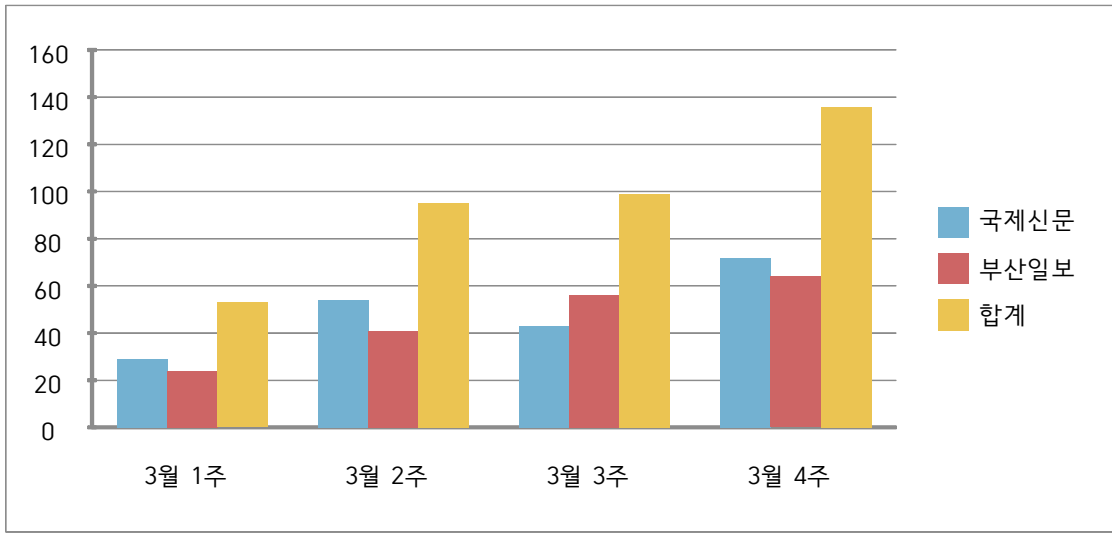
분석기간	3월23일(월)부터 3월27일(금)까지
분석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분석기사	제목은 물론 내용에서도 “선거”, “총선”, “지역구”, “지지율”, “유세” 등 선거와 관련된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된 기사 모두

△ <표1> 부산지역 일간지 4·15 총선 관련 보도 양적 분석 개요

#### 3월 넷째 주 선거 보도 136건

#### 기획 보도 4건, 사실 확인 보도 0건

3월 넷째 주 선거 보도는 136건이다. 모니터 시작 이후 처음으로 선거 보도가 100건을 넘었다. 선거 보도 비중 역시 19.7%로 전 주보다 6.5%p 상승했다. 신문사별로 보면 국제신문 72건, 부산일보 64건으로 국제신문에서 선거 보도가 더 많았다. 총 보도 수 대비 비중도 국제신문이 20.0%, 부산일보가 19.3%로, 미세하지만 국제신문이 0.7% 더 높았다. 보도 유형 역시 3월 첫째 주 96.2%에 달했던 스트레이트 기사가 3월 넷째 주에 들어선 80% 대로 내려왔고 사실과 칼럼에서 선거를 언급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하지만 기획·특집·연재 보도나 사실 확인 보도와 같은 비교적 심층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한 기사 유형은 여전히 저조한 보도량을 보였다.



△ 지역신문 3월 선거보도 건수 추이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 도 량	선거 보도 수	72	64	136
	총 보도 수	359	331	690
	총 보도 수 대비 비중	20.0%	19.3%	19.7%
	지난 주 대비	+ 9.4%	+ 2.9%	+ 6.5%
보 도 유 형	스트레이트	65	50	115
		90.2%	78.1%	84.5%
	기획, 연재, 특집	0	4	4
		0.0%	6.2%	2.9%
	인터뷰	0	0(1)	0
		0.0%	0.0%	0.0%
	사설	2	4	6
		2.7%	6.2%	4.4%
	칼럼	3	2	5
		4.1%	3.1%	3.6%
	사진	2	4	6
		2.7%	6.2%	4.4%
사실확인보도	0	0	0	
	0.0%	0.0%	0.0%	
기타	0	0	0	
	0.0%	0.0%	0.0%	

△ <표2>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건수와 비중

## 대진 윤곽 드러나자마자 실시한 여론조사는 후보자 이미지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 여론조사 시행한 국제신문, 선거 준칙은 어디에?

미래통합당의 금정구 공천 갈등까지 일단락되면서 부산 지역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공천 직후 대진이 정해지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다.

국제신문은 여론조사 기관 폴리컴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3일 하루에만 8건의 여론조사 보도를 쏟아냈다. 이날 국제신문의 선거 기사가 총 15건이었던 점을 미뤄볼 때 절반 이상이 여론조사 결과에 할애된 셈이다.

유권자에게 후보자나 정책, 공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도 않고서 대진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은 아쉬우나, 지역 신문에서 지역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별인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는 것은 충분히 보도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은 없으면서 제목에 수치를 내세워 판세를 확정 지으려는 보도는 위험할 수 있다. 민심을 왜곡 없이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보완하고는 있지만,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다. 뉴스타파가 2014년 지방선거부터 2016년 총선까지 국내 여론조사기관이 내놓은 선거 예측을 분석한 데 따르면, 여론조사 예측값과 실제 득표율의 차이가 평균 9.6%에 이른다. 즉, 적은 폭의 차이를 강조해 당락을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예측에 집착하기보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짜 민심'이 뭔지 찾아내려는 더 면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기존 여론조사 보도 관행에서 벗어난 한겨레의 <민주-통합 양당 지지율 6개월 치 분석해보니 10-12%P차 평행선>(3월 16일)은 6개월 동안 정당 지지율을 분석하여 여론의 흐름을 정밀하게 포착하려 시도는 경마 중계식 보도를 뛰어넘는 보도로 주목할 만하다.

국제신문 3월 23일 자 1,2면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그대로 제목으로 내세웠다.

<부산진갑 김영춘 34.6% 서병수 36.3%…북강서갑 전재수 47.1% 박민식 37.2%>(3/23, 1면)

<박재호 40.5% 이언주 42.6%…남을 초격전지로 떠올라>(3/23, 2면),

<전재수, 박민식 9.9%P 차로 따돌려>(3/23, 2면)

수치의 나열과 비교를 강조한 이러한 경마식 보도는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 <2020총선보도 제작준칙>에 따르면 비판의 대상이자 피해야 할 사항이다.



예측해보려고 애쓸 게 아니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유권자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국제신문 여론조사 보도는 결과 나열에 머물렀다.

또한 여론조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유권자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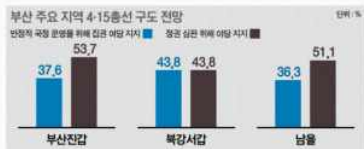
국제신문은 <코로나 여파에 '정권 심판론' 소폭 상승... 발등 불 떨어진 與>(3/23, 3면)에서 "4·15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정권 심판론'에 무게가 실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같은 주에 실린 <코로나19 사태 정부 대응 호평에 부울경 민심도 '출렁'>(3/27, 5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2%포인트 오른 52.5%를 기록했다. (중략)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대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같은 주에 보도된 기사지만 어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반된 내용을 말하게 된 셈이다. 여론조사를 그대로 나열만 한 기사는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

## 코로나 여파에 '정권 심판론' 소폭 상승... 발등 불 떨어진 與

지난해 말 총선구도 여론조사선 정권 심판 51% 야당 심판 41%

3개월 지난 이번 조사서는 부산전국·남울시 격차 벌어져 정당지지도 상승폭도 野 우세



4·15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정권 심판론'에 무게가 실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선' 민심 및 경기 침체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 대응에 대한 호평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남은 선거 기간 여당이 반전을 노릴 수 있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플리퍼

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한 여론 조사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여론조사의 경우 부산 전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고, 이번 조사는 3개 지역구(부산전국·남울·북경서

경)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을 엿볼 수 있겠다. 부산에서는 일론에 '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51.8%로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41.8%)보다 10%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사뭇 달랐다. 부산전국의 경우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7%로, 집권 여당을 지지한다는 응답(37.6%)보다 16.1%포인트 앞섰다. 남울에서도 '정권 심판론' (51.1%)이 '야당 심판론' (36.3%)보다 14.8%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북경서

△ 국제신문, 3/23, 3면

## 코로나19 사태 정부 대응 호평에 부울경 민심도 '출렁'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52.5% PK서도 36.7%→41.8% 상승 與 코로나 여론 격구 활용 방침 黃 제안 '40조 채권대책'도 검토 통합당은 총선 영향력 차단 주력 '우리가 낸 정책 그대로 베풀 것'

◇PK지역 정부 및 여야 지지율 추이

시기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률 (%)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	미래통합당 지지율 (%)
3월 4주차 (29-31일)	41.8%	29.2%	41.4%
3월 3주차 (16-18일)	36.7%	30.5%	47.8%
3월 2주차 (9-11일)	33.4%	26.2%	42.6%
3월 1주차 (2-4일)	37.0%	37.9%	37.1%

※자료: 리얼미터 여론조사

4·15총선에서 여야의 승부를 가를 최대 이슈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부산 울산 경남(PK) 민심이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8명을 대상으로 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2%포인트 오른

52.5%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1월 2주차 조사에서 53.7%를 기록한 이후 1년 4개월만에 최고치다. PK지역만 놓고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월 1주차 37.0% >2주차 33.4% >3주차 36.7%로 등락을 거듭했다. 4주차 조사에서 41.8%로 뛰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대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했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전국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PK에서는 약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전주보다 2.9%포인트 상승하며 올해 최고치인 45.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PK에서는 오히려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29.2%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전국 지지율에서 전주보다 3.8%포인트 내린 29.8%로 민주당과 15.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PK 지지율은 41.4%로 6.4%포인트 하락했으나 민주당보다는 12.2%포인트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총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피해 보전을 위한 현금성 지원과 관련,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혜를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채권 40조 원을 발행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주장을 구체화해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정부의 대응에 대한 호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29조 원 규모를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통합당이 이미 지난 18일에 냈던 정책을 그대로 베풀어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 위기가 이후 더 큰 경제 위기가 되겠다고 세계의 석학들이 경고하고 있다"며 "이정권 3년의 실정을 제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다. 이명관 신임팀장 기자 myung@ookoo.co.kr

△ 국제신문, 3/27, 5면

한편 이러한 국제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나열 중심 보도는 3월 넷째 주 유해보도 목록에서 경마성 보도와 전투/경기 표현 보도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경마성 보도	11	1	12
	15.2%	1.5%	8.8%
가십/이벤트 보도	2	5	7
	2.7%	7.8%	5.1%
일방중계 보도	3	2	5
	4.1%	3.1%	3.6%
양당/다방 단순보도	2	2	4
	2.7%	3.1%	2.9%
양대정당중심 보도	23	30	53
	31.9%	46.8%	38.9%
정치혐오 보도	0	1	1
	0.0%	1.5%	0.7%
전투/경기 표현 보도	11	6	17
	15.2%	9.3%	12.5%
지역/연고주의 보도	4	7	11
	5.5%	10.9%	8.0%
익명보도	3	2	5
	4.1%	3.1%	3.6%
따옴표 보도	5	5	10
	6.9%	7.8%	7.3%
오보	0	0	0
	0.0%	0.0%	0.0%

△ <표n> 매체별 4·15총선 관련 유해보도(\*중복집계)

### 야심차게 출발한 총선거획,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부산일보는 3월 16일 특별취재팀과 총선거문단을 구성해 후보자와 공약을 검증하는 보도를 하겠다고 알렸다. 3월 셋째 주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이를 분석하며 SNS를 활용해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즉문즉답’ 시리즈, 정치권 뒷얘기를 전하는 ‘총선 뉴스 픽(pick)’ 등의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 하지만 유권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 가십거리 정도의 내용이나 양당 구조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3월 넷째 주에도 이어졌다.

3월 23일 5면에 실린 즉문즉답 기획 <조심스러운 민주 “10석” VS 자신만만한 통합 “짜슬이”> 기사에서는 4·15 총선 예상 의석을 묻는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는 해당 답변들이 “후보들이 매일 접하는 민심의 현주소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물론 후보들의 이 같은 답변은 현실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보다는 낙관과 기대가 뒤섞인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여론조사와 같은 구체적 근거 없이 답변한 기대의석수는 유권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총선거획 보도가 소수정당을 배제한 양당 구조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카카오톡 채팅을 활용해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다는 형식의 ‘즉문즉답’ 기사는 인원과 시간, 거리에

제약을 덜 받는 IT 매체를 활용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통합당 양 당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로 나오는 카카오톡 채팅방 이름 자체가 부산-민주당, 부산-통합당으로 나뉘어 있어 양당을 제외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 등은 제외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지난 주차 보고서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짚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 나의 필살기는 “힘 있는 정치력·튼튼한 체력·살인미소...”

### 죽문 죽목

#### 후보들이 밝히는 '경쟁력'

與, 추진력·국경 경험·진정성  
정책 실행능력 강점으로 내세워  
통합, 결박감·조직력·토박이  
현 정권 심판 바라는 민심 강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둔 24일 '죽문죽목'은 선거 승리를 위한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여당은 정책 실행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고, 야당은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을 경쟁력으로 꼽았다. 국정안정과 정권심판이라는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구도기 측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영춘(부산진갑) 의원은 자신의 강점을 '힘 있는 정치력 역량'이라고 밝혔다. KTX 부장역 설치 등 지역 숙원 현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행력으로 유권자 표심을 공



《부산일보》 정치부 '죽문죽목' 채팅방에서 4·15 총선 승리를 위한 '비장의 무기'를 묻는 질문에 후보들이 답하고 있다.

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같은 당 배재정(사상) 후보는 '과동력 우호력'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배출한 사상 지역의 자부심과 아울러 총리 시절 행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서실적을 지낸 여당 후보의 강점을 한껏 표현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민주당 유영진(부산진을) 후보는 '추진력'을 앞세우면서 마스크 공장을 2년 만에 137개로 늘린 성과를 사례로 들었다. 농림축산부의 반대에도 계관산단일지를 도입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

조했다. 윤준호(해운대을) 의원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진정성'을 내세우고 특히 재선과 반대, 반송 지역발전에 대한 반영을 입찰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지역발전이 유리할 수 있는 여당 '프리트임'을 전제한 답변이다.

반면 부산시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서병수(부산진갑) 후보는 '말재인 정권 심판을 원하는 민심'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서 후보는 자신의 이름 영문 대리글자인 'BS'를 강점으로 꼽았는데, 부산을 나타내는 대리글자(BS)와 같은 자신의 이름을 활용한 선거 마케팅이다. 같은 당 박수영(남강) 후보는 '활력'이라는 말박한 특을 올렸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활력함으로 보인다.

이렇지만 현역 의원들은 정책 추진 능력을 강점으로 들고 나왔다. 3선에 도전하는 통합당 이현숙(부산진을) 의원은

수십 년간 답보상태였던 철도시설 이전과 재해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발전청도정비장 이전사업 예타당성조사 진행으로 지역 숙원 사업을 가시화시킨 '특실'을 강점이라고 했다. 장재원(사상) 의원의 강점을 살펴보면 쌓은

정무와 예산, 법안을 밀려낸 국회 경험이 3선을 바라보는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밝혔다.

"처음 본 사람도 내편으로 만드는 친화력과 실행능력(민주당 해운대갑 유영민·민주당 강은경 후보), 겸손하게 지역 주민을 만나 소통하는 것(통합당 수영전북민 후보) 등 유권자와의 소통 능력이 강점이라는 답변도 많았다. '기존국민'(통합당 정동만 후보)과 '중영도 주민'(통합당 황보승희 후보)이 비장무기로 거머쥔 지역 토박이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통합당 김희곤(동래) 후보는 '튼튼한 신발 발장'이라며 지역 구석구석 다나는 것을 무기로 삼았고, 김기애(해운대을) 후보는 '올리고 여기는 일을 실행하는 데 1초도 안 걸리는 추진력'이라고 특을 올렸다.

'죽목' 뒤는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통합당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살인미소'라고 답하며 단복을 벗어던진 뒤 젊은 보수 지지자들이 자신의 무기로 밝혔다. 민주당 최태훈(기장) 후보는 '정책·정치력·체력'이라며 선인 이상사(사상)를 무기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했

이재강(서동) 후보는 '3수생의 경험'을 강점으로 밝히며 과거 낙선 경험이 소중한 재산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 김보은(중영도) 후보는 '제 아너'라며 힘들 때 지지자들과 결을 지켜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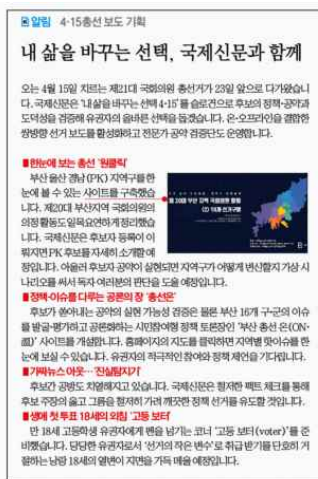
같은 당 이상호(사하을) 후보는 '손오공과 똑 같고 했는데' '손오공이 대리님'로 수많은 손오공을 만들듯이 이상호의 본인이 사하에 수백 명이 있고, 이들이 자신의 열거리를 특별 하며 홍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직력이 주목거리는 예이다. 당 최고위원인 김해영(연제) 의원은 '젊음'이 최대 강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박재호(남을) 의원은 '스미트프롬'을 자신의 무기로 말하면서 '유권자가 못 본 건지는 영양비밀'이라고 재치 있게 답했고, 통합당 박민식(북강서갑) 후보는 'early bird'라며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부지런한 선거운동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공천 제의 등 우려곡절 끝에 공천장을 지진 같은 큰 감동형(금정) 후보는 '사명감'을 무기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했

다. [www.ossilbusan.com](http://www.ossilbusan.com)

### △ 부산일보, 3/25, 4면

한편 국제신문은 3월 23일 1면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선택, 국제신문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4.15 총선 보도 기획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쌍방향 선거 보도를 강조하며 총선 '원클릭' 사이트 및 시민참여형 정책 토론회인 '부산 총선 온(ON·溫)' 사이트 개설 및 팩트 체크 활동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쌍방향 선거 보도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면에서는 어떠한 선거기획 보도를 찾아볼 수 없어 당혹감을 준다.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유권자가 총선 정책과 이슈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전문가 공약 검증단도 운영한다고 밝힌 만큼, 본지에서도 보다 깊이 있고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 △ 국제신문, 3/23, 1면

## 군소정당은 구색 맞추기용?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에만 집중해 군소정당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는 비판이 이번 주에도 이어졌다. 동래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다룬 국제신문 3월 23일 9면 <“넓은 정치 세력의 교체”...“지역발전 공약 연속성”>에서는 출마한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후보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고 기사 본문에선 후보에 대한 평가와 약력 그리고 각 후보가 한 발언 등을 소개해 주고 있다. 민주당 박성현 후보와 정의당 박재완 후보의 성은 ‘박’으로 동일하지만 기사에서 지칭하는 ‘박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만 의미한다. 정의당 후보에겐 기사 마지막 단락에서 “동래에는 유락여중 운영위원장 출신인 정의당 박재완 후보와 국가혁명배금당 소속 후보도 5명이나 나섰다.”는 단 한 줄만 할애했다.

### “넓은 정치 세력의 교체”... “지역발전 공약 연속성”

#### ■ 동래

박성현 “경제통” 김희곤 “실무형”  
전통 보수 텃밭- 박재완도 도전



박성현(민주당) 김희곤(통합당) 박재완(정의당)

천 사업 하나만 봐도 단 몇 년안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박 전의 장 때부터 이진복 의원에 걸쳐 이뤄진 것"이라며 지역 발전 공약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4·15 총선 동래 후보는 여야 모두 새 얼굴이다. 다만 참신한 후보나, 안정감 있는 후보나 대결로 모아지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서 이진복 의원으로 이어진 39년간의 넓은 정치세력 교체를 내건다. 이 의원 보좌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김희곤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풍부한 행정경험과 입법 경험 등으로 현장에 바로 쓸 수 있는 능력과 안정감을 강조한다.

박 후보는 23일 “동래는 과거 부산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변화에서 소외돼 발전이 정체됐다”며 “박관용 사단”이 39

년간 동래 정치권력을 쥐면서 뚜렷한 업적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또다시 ‘비서세습’을 하려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학생 운동을 했으면서도 기업에서 일하며 실물경제를 경험한 전문가라는 점을 주민들께서 평가해주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후보는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후보와 달리 지역을 알고 그동안 지역과 호흡해온 사람임을 주민들이 알아주고 계신다”면서 “지역 현안 하나하나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실무에 참여해온 준비된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천

날 발간한 예비후보 공보물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월 예정된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를 제안하고 나왔다. 통합당 김 후보는 ‘동래 한바퀴 투어버스’ 도입과 금강공원 재개발 조속 추진으로 제2의 동래관광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부산의 안동으로 불리는 동래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아 파트가 잇따라 조성돼 민심의 변화 여지도 적지 않다. 동래에는 유락여중 운영위원장 출신인 정의당 박재완 후보와 국가혁명배금당 소속 후보도 5명이나 나섰다.

정유선기자 freesun@kookje.co.kr

△ 국제신문, 3/23, 9면

부산일보의 경우 <[김해울] 與 현역에 보수 후보로 나선 ‘영원한 재야인사’ 격돌>(3/25, 5면)에서 국제신문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후보 3명의 사진을 실고 있지만, 정의당 후보에 대한 소개는 기사 말미에 “두 후보 외에 정의당 배주임 후보와 전 시의원인 무소속 이영철 후보, 기독교 유통일당 허점도 후보가 가세했다.”라는 소개로 끝이 난다. 이보다 더 짧은 사례는 국제신문 <“서면 대개조 추진” - “주거환경 개선”>(3/26, 9면) 기사에서 부산진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후보를 소개하며 민생당 후보에 대해 “민생당에서는 유미영 거삼사랑문화나눔봉사단 회장이 표발을 다진다.”고 끝난 것을 들 수 있다.

양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언론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거대 양당에만 치우친 불균형한 보도행태다.

이러한 언론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부산일보 <부산 역대 최다 여성 후보, 이번엔 당선?>(3/24, 8면)다. 기사는 “23일까지 정리된 각 당의 후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배재정(사상), 강윤경(수영), 최지은(북강서울), 김경지(금정) 등 4명과 미래통합당 이언주(남울), 김미애(해운대울), 황보승희(중영도) 등 3명이 국회 입성을 노린다. 여기에 2명의 민중당 여성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부산에서는 모두 9명의 여성 후보가 나섰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민중당 여성 후보의 경우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다. 기사의 주제가 여성 후보의 출마 그 자체로 정당 간 비중 차이를 둘 이유가 없었으며 인원수도 9명에 불과해 이름과 출마 지역구 모두 기술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숫자로만 처리한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 부산 역대 최다 여성 후보, 이번엔 당선?

민주 4·통합 3명 등 9명 도전장  
20대 국회엔 한 명도 배출 못 해

4·15 총선에서 승리해 21대 국회에 당당히 입성할 부산지역 여성의원은 몇 명이나 될까. 부산은 20대 국회에 여성 의원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역대 가장 많은 여성 후보가 총선 준비에 나선 데다 긍정적인 당선 전망도 나오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23일까지 정리된 각 당의 후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배재정(사상), 강윤경(수영), 최지은(북강서울), 김경지(금정) 등 4명과 미래통합당 이언주(남울), 김미애(해운대울), 황보승희(중영도) 등 3명이 국회 입성을 노린다. 여기에 2명의 민중당 여성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부산에서는 모두 9명의 여성 후보가 나섰다.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야 여성 '대표선수'로 꼽히는 배재정 후보와 이언주 후보는 풍부한 정치 경험을 무기로 선

거운등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다시 사상 선거구에서 도전에 나선 배재정 후보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낸 뒤, 지난해 1월부터 지역구를 전방위로 누비고 있다.

보수통합의 한 축인 전진당을 이끈 이언주 후보는 남울로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고 '정권 심판론'을 무기로 3선에 도전한다.

통합당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김미애 후보는 여공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 입양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인생 스토리가 강점으로 꼽힌다. 또 황보승희 후보는 지역에서 탄탄한 인지도와 지지세를 갖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변호사인 민주당 강윤경 후보는 젊은 감성으로 '변화와 활력'을 내세우며 보수가 장기간 장악해 온 수영 지역구를 뚫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최지은 후보 역시 참신한 이력을 바탕으로 민주당 조직의 지원사격을 받아 젊은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miso@

△ 부산일보, 3/24, 8면

국제신문의 경우에도 3월 25일 8면 <부산 정의당 후보 4인 "우리도 뛰고 있어요"> 기사에서 정의당 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기사 내용과 별개로 쓰인 제목에서 정의당 후보가 저자세로 호소하는 어투를 씌워 군소정당에 대한 불필요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더불어민주당	56	48	104
	77.7%	75.0%	76.4%
미래통합당	61	52	113
	84.7%	81.2%	83.0%
정의당	12	6	18
	16.6%	9.3%	13.2%
미래한국당	8	3	11
	11.1%	4.6%	8.0%
비례연합정당	5	4	9
	6.9%	6.2%	6.6%
국민의당	3	3	6
	4.1%	4.6%	4.4%
민생당	6	2	8
	8.3%	3.1%	5.8%
무소속	8	3	11
	11.1%	4.6%	8.0%
기타	8	6	14
	11.1%	9.3%	10.2%

△ <표5>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에서 등장 정당(\*중복집계)

### 정책·공약 보도 건수 증가, 검증과 분석은 어디에?

3월 넷째 주 보도에서는 정책·공약 보도 비중이 다른 주제 비해 크게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적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내용이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

국제신문 <통합당 부산 공천자들 1호 공약 합동 발표...대세는 '트램'>(3/24, 8면) 기사에서는 통합당 부산시당 공약인 부산비전21을 소개하며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트램 공약에 대해 식상하다는 평가와 함께 “유권자에게 필요하지만 식상했던 교통 공약이 ‘도시철도’에서 ‘트램’으로 옮겨간 셈이다.”라는 평가를 남겼다. 하지만 평가에만 머무르고 해당 공약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아 유권자가 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각 후보 공약 18개와 부산시당 공약 3개를 합쳤다는 의미로 소개한 부산비전21 공약 소개에서 트램과 관련 없는 다른 공약들은 다루는 분야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 공약을 평가하는 데에 충분한 정보값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부산일보는 <여야 부산 공약, 재탕이거나 늑장이거나...>(3/24, 8면) 기사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지역공약을 분석하며 19대 대선 공약과 비교해 중복되는 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정당의 공약 소개에 더해 지역사회에서 진행된 정책 제안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들도 지적되었다. 부산일보는 3월 25일 6면 <“지역 현안 공약에 반영을” 부산상의 정책과제집 전달> 기사를 통해 부산상공회의소가 제안한 정책 사항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같은 날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는 이를 보도한 연합뉴스와 같은 통신사나 한겨레 등 전국지와 달리 지역 신문임에도 3월 26일 11면 사진기사로만 소개해 아쉬움을 남겼다.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자**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5일 부산 동구 정발 잠근 동상 앞에서 '친일파 없는 국회만들기 운동 결과 및 노노후보(친일정치인)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모형에 붙어 있는 바퀴벌레를 망치로 때어 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중희 기자 jih@

한편 국제신문은 3월 26일 10면 <환경단체 “동남권 대기환경청 신설 공약 채택하라”> 기사를 통해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제기한 10대 환경의제 공약화에 대한 소식을 다루었으나 앞서 부산일보에서 언급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정책 제안과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3월 24일 부산시민연대가 지역 현안과 관련한 10대 의제를 선정해 부산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은 부산일보, 국제신문 모두 다루지 않았는데 지역 신문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총선 정책활동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후보자 기본 정보	2	1	3
	2.7%	1.5%	2.2%
정책 공약	21	21	42
	29.1%	32.8%	30.8%
후보자 자질	15	21	36
	20.8%	32.8%	26.4%
공천 관련	15	19	34
	20.8%	<b>29.6%</b>	<b>25.0%</b>
선거 전략	33	22	55
	45.8%	34.3%	40.4%
선거 판세 여론조사	21	18	39
	29.1%	28.1%	28.6%
후보 동정	0	0	0
	0.0%	0.0%	0.0%
선거법 관련	1	0	1
	1.3%	0.0%	0.7%
시민 사회 동향	1	3	4
	1.3%	4.6%	2.9%
기타	2	2	4
	2.7%	3.1%	2.9%
합계	111	107	218

△ <표n>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에서 보도 주제(\*중복집계)

